

영터리 세일 막고 '오픈 프라이스' 걸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골자로 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일부 제조사들의 '눈가리고 아웅' 식 편법으로 퇴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피해 'L-20' 등 암호에 가까운 표시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L-20'은 L제과업체의 가격이 2000원이라는 뜻으로, 이같은 제품들이 광주지역에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일부제조사들 편법 표시 유통 상인들 원가판별 어려워 불만

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C식품 업주는 "제품 가격을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어 막막했는데 영업사원이 제품에 '암호화'한 표시를 가르쳐주며 이걸 보고 판매하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유통업계의 '영터리 세일'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골자로 현재 아이스크림 등 총 279종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취지 달리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상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A마트 업주는 "슈퍼에서 취



지난 1일부터 '오픈 프라이스'가 시행된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동네 마트나 구멍가게에는 제조사들이 암호화해 표기한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작은 사진의 원래 'L-20' 표기는 L사 제품가격이 2000원이라는 뜻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급하는 상품이 1만여개가 넘는데 일일이 가격표시를 붙이거나 가격을 전부다 외워야 할 판"이라며 "영업사원이 가격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제품 가격을 확인해주는 기계를 사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제도가 대형업체의 유통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경남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영세상인들이 원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장소비자가격 같은 판단 기준이 없다면 구매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문제들을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결국엔 영세상점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대형마트들이 담합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유리한 제도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건설 '상무 힐스테이트' 잔여가구 분양

'건설명가' 현대건설이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에 '상무 힐스테이트' 잔여 가구를 분양한다.

상무 힐스테이트는 지상 15층 7개동 총 336세대로 구성됐다. 159㎡(48평)형 148가구와 224㎡(68평)형 45가구는 이미 분양을 마쳤고, 192㎡(58평)형만 일부 남아있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런칭 후 12년 만에 광주에 내놓은 야심작으로 유럽 스타일의 스카이라인이 돋보인다. 외관은 홍콩의 세계적인 디자인회사 LWK사카 디자인했다.<사진>

전 세대를 정남향으로 배치했고, 동과 동 사이의 평균 거리는 무려 50m나 된다. 조망권을 고려해 주변 도로보다 10m 이상 높였다. 녹지율도 무려 41%나 된다. 단지 곳곳에 조성된 수경시설과 단지 외곽을 따라 낸 산책로는 입주자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생활의 여유를 더해 주는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실내 골프연습장·휘트니스센터 등이 갖춰져 있고 지하 주차장을 쉼터가튼으로 꾸며 개방감과 채광을 높였다. 광주 최초로 UPIS(지능형주차)시스템을 도입했고 탁해진 실내 공기를 밖



으로 내보낸 뒤 깨끗한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는 실내 환기시스템, 중앙집중식 진공청소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상무로와 무진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호남대·상무고·서광초 등 고급 학교도 가깝다.

상무 힐스테이트는 올해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분양문의 062-225-311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기회복? 신용회복 신청 줄었네

광주·전남 28% 감소

올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권에서 빚을 얻어낸 뒤 이자조차 갚지 못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찾은 서민도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다. 광주·전남지역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년 상반기 대비 28% 감소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가 총 4만102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6.6%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방문 및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채무상당자 수도 18만9287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5%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신용회복 지원자 중 소액금융을 신청한 사람은 작년 상반기 6100명에서 올해 상반기 886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액도 177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도 급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285명으로, 전년 동기(1787명) 대비 28% 감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붉은악마 티셔츠 제3세계 보낸다

光銀 23일까지 모으기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지난 7일부터 본부서를 비롯한 137개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티셔츠 기부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오는 23일까지 티셔츠 1000장을 모아 (재)아름다운 가게에 건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기증할 경우 137개 전 점포에서 받기로 했다.

이 운동은 월드컵 열기가 시들해지면 버려지거나 입지 않게 되는 붉은악마 월드컵 응원복을 수거해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병일 팀장은 "우리은행의 월드컵 티셔츠 기부 운동이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유통업계 '바캉스 마케팅' 돌입

유명 수영복 등 최대 50% 할인 판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지역 유통업계가 '바캉스 마케팅'을 뜨겁게 펼치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5일까지 8층 이벤트를 열고 '롤 씬머 수영복 특집전'을 열고 아레나, 엘트 등 유명 브랜드의 수영복을 할인판매한다.

또 '여름 핫 아이템 기획전'을 열어 면티셔츠, 반바지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히트 상품 기획전'을 통해 미스틱스티, EnC, A6, 비자트인 뉴욕 등 유명 브랜드에서 인기를 끈 티셔츠,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등을 한정 판매한다. 이밖에 주말기간 동안 '영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 5, 6층 영 매장에서

캐리커처 서비스, 생과일 주스 시음회, 카페일 쇼 등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내달 15일까지 여름 수영복 시즌매장을 운영하면서 유명 수영복 브랜드 제품을 20% 할인판매하고 비치백과 선크림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또 11일까지 4층 매장에서 '영캐주얼 바캉스 대전'을 마련해 원피스, 치마, 블라우스, 티셔츠 등 여름철에 즐겨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8층 홈패션·가구 매장에서도 같은 기간 '휴대대&대자리 특집전'을 열어 휴전대, 침대용 왕골자리, 대나무자리 등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바캉스 특집

으로 11일까지 당일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비치품을 증정한다.

이마트는 14일까지 전점에서 '바캉스용품 대전'을 열어 수영복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자외선 차단 보행기, 커플 튜브 등 이색 상품도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14일까지 여름 티셔츠를 최고 50%, 수영복과 물놀이 용품 여행용 가방, 모자, 샌들 등 바캉스 잡화 인기 품목을 살 경우 패밀리카드에 20배로 적립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다음달 중순까지 전 점포에서 '바캉스용품 특별기획전'을 진행, 수영복을 최대 20% 할인판매하며 캠핑용품 물량을 50%가량 늘려 특가에 선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오토車 보험료 할인 당분간 유지키로

오토매틱(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당분간 유지된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지난 5월 신고한 자동차보험 특별요율 변경안을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이안에 따르면 오토매틱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폐지되고, ABS(미끄럼방지 제동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도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요율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할인 혜택까지 없다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변경안을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습스